

악취 주범 입암천, ‘목포의 청계천’ 만든다

1.2km 구간 3단계 계단형태 조성 생태하천으로 탈바꿈

아치형 보행교도 설치...市, 100억원 투입 내년말 완공

매년 여름철이면 악취의 주범이었던 목포 입암천이 서울 청계천 부럽지 않은 친환경 생태 하천으로 거듭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25일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입암천을 ‘목포의 청계천’으로 조성하는 대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은 여름철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제기됐던 악취 민원을 말끔히 해소시킨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입암천 인근 주민들은 여름철만 되면 악취 때문에 문을 닫고 살아야 하는 처지도 모자라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등의 사용으로 과도한 전기요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등 삼중고를 겪어왔다. <광주일보 8월 22일자 11면 보도>

‘목포의 청계천’ 조성 사업은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총 연장 1.27km에 폭 15~25m의 입암천을 완전히 건너내고 단면도상 3단계 계단 형태를 띤 사실상 인공 하천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상하수도사업단(이하 사업단)은 물 흐름이 적어 악취의 발생 원인이 됐던 하천 밑바닥의 갈대과 침전물 등을 걷어내고 맨

아래층인 하상부에 평균 폭 10~20m에 깊이 2m의 수로를 설치한다. 이 수로는 콘크리트로 타설된다.

수질 악화의 주원인인 유속을 원활하게 하고 침전물이 쌓일 경우 물을 흘려보내 사전에 악취발생 원인을 제거(정소)하기 위한 조치다. 침전물을 청소하기 위한 세척시설도 3곳에 건립된다.

이를 위해 남해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상류로 끌어올려 이를 방류해 발목 정도 깊이의 물이 계속 흐르게 한다는 게 하수과의 계획이다.

또 집종호우 시 물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들이 많아 침수의 원인이 됐으나 앞으로 이 같은 장애물이 모두 사라지게 돼, 목포의 대표적인 상습침수 지역인 2·3호 광장의 침수 예방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수에 장애를 초래하는 징검다리도 철거되고 대신 3개소에 경관이 뛰어난 아치형 보행교가 설치된다.

두 번째 층에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과 함께 산책로가 조성된다. 호안 축벽은 그대로 존치된다.



입암천 전경

박홍률 시장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

내년말까지 완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평화광장 앞바다 갈치낚시 불야성

전국에서 강태공들 몰려 성황

하룻밤 100마리 이상 낚기도

“잔잔한 먹빛 속에서 바르르 몸을 떨며 올라오는 은빛 영롱한 빛깔을 보면 감탄사가 절로 튀어나와요”

경기도에서 출조 왔다는 한 낚시꾼은 “가끔 씨알 굵은 갈치가 나오고 하나까 그 짜릿한 손맛을 잊지 못해 종종 찾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들어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가 밤만 되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강태공들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특히 추석 이후부터 3지(순가락 3마디)의 굵직한 갈치들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에서 목포를 찾는 낚시꾼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24일 밤 찾은 선상 낚시현장에도 어선마다 10~20여명의 낚시꾼들이 갈치 낚시에 집중하고 있었다.

특히 밤 갈치낚시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초보자나 가족 단위로 즐기는 경우는 많았다.

가을밤 향연을 만끽하기 위해 낚시대를 드리운 낚시꾼들의 모습은 처음 무대에 선 듯 결연한 표정으로 집어등 불빛에 엮여 보였다. 쫓아를 잘라 지그헤드에 걸고 물속으로 던지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필떡이는 갈치가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을 펼치는 모습도 수시로 목격됐다.

한 선상 낚시배 선장은 “올해는 태풍이 없었고 물살도 없어 하룻밤 새 100마리 이상 낚는 태공들이 부지기수다. 초보자들도 요령만 익히면 30~40마리는 거뜰하다”고 귀띔했다. 예전에는 바지선들이 정박해 낚시를 하던 방식이었지만 요즘은 어선 이동식 방식으로 바뀌면서 포인트로 이동이 가능해 갈치 어획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예전과 다른 점이다.

한때 80척이 넘는 갈치 낚시배 운행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기도 했으나, 관계기관이 지난해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어선 36척에 대해 운항을 허용하면서 어수선한 모습도 사라졌다.

김춘성(목포대교낚시점 대표)씨는 “갈치 낚시는 신중해야 한다. 입질이 왔다고 바로 채면 실종될까 싶때. 느긋하게 기



전국에서 몰려든 낚시꾼들이 목포 앞바다 선상 낚시배에서 갈치낚시에 빠져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다렸다가 낚시대를 늦추고 재차 입질이 오면 잡아야 한다. 이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 비결”이라며 “집에서 구이나 찌개로 가장 많이 쓰는 씨알이 3지나 4지인데 요즘 이런 씨알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갈치낚시의 지그헤드가 특이했다. 보통 지그헤드의 바늘은 위로 향하는데 갈치

는 바늘이 밑을 향하고 있다. 이는 갈치가 수직으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이라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한편, 갈치 낚시배는 일몰 시각에 맞춰 오후 7시 무렵부터 탑승이 가능하고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운항한다. 요금은 1인당 6만원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시 ‘복지 허브화’ 시범사업 내년 8개 동 추가

자치법규 개정 인력 보장 나서

목포시가 ‘읍면동 복지 허브화’ 시범 동 확대에 대비하고 주민 속으로 ‘더 넓게, 더 깊게, 더 자주’ 파고드는 복지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복지 인력 보강에 나선다.

목포시는 25일 “복지 허브화 시범 동 확대 방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시범동 복지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목포시는 관내 23개 동 가운데 용당1, 원산, 목원, 유달, 북항, 용해, 부주, 상동 등 8개 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명칭도 기존 동 주민센터에서 동 행복복지센터로 변경됐다.

목포시는 내년에 8개동을 더 추가해

모두 16개 동에서 복지 허브화 시범 사업을 펼친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복지팀장을 포함한 3명으로 시범 동 ‘맞춤형 복지팀’을 꾸려, 복지팀장 아래 ‘맞춤형 복지’(1명)와 ‘일반 복지’(1명)로 구분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신규 사회복지 인력 8명을 확보하고, 본청 업무량 분석을 통한 사회복지 인력을 조정해 시범 동에 배치한다는 게 목포시의 복안이다.

신현정 목포시 자치행정과장은 “내년 2월까지 시범 실시 동 8개를 추가 선정하고 5월까지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오는 2018년 전국 실시에 대비해 나머지 7개 동에 대한 전환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사 조선업 재해 예방 연찬회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사(지사장 함광호)는 “최근 목포 현대호텔에서 조선업종 재해예방을 위한 전남 서부지역 조선업종 경영총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조선업종 경영총의 안전보건교육을 높이기 위해 ‘경영총의 산업재해예방과 책임’, ‘조선업종 재해 발생원인 및 대책’, ‘경영진을 위한 CEO 안전경영’ 등 다양한 주제를 특강이 실시됐다.

함광호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사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근로자들에게 작업 전 안전점검을 적극 독려하는 등 안전 리더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조선업종 경영총의 안전보건교육을 높이기 위해 ‘경영총의 산업재해예방과 책임’, ‘조선업종 재해 발생원인 및 대책’, ‘경영진을 위한 CEO 안전경영’ 등 다양한 주제를 특강이 실시됐다.

조선업종은 전남서부지역 대표 산업으로 대불산단 입주업체 중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내 제조업 재해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내 재해예방 및 감소를 위한 핵심타깃업종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조선업종 경영총의 안전보건교육을 높이기 위해 ‘경영총의 산업재해예방과 책임’, ‘조선업종 재해 발생원인 및 대책’, ‘경영진을 위한 CEO 안전경영’ 등 다양한 주제를 특강이 실시됐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내달 1일 시민의날 행사...동별 노래자랑 등 행사 풍성

목포시가 개항 119주년을 맞아 내달 1일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제54회 시민의날 행사를 개최한다.

25일 목포시에 따르면 민선 6기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주제로 시민소통과 화합의 밑거름으로 삼고,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전야제와 기념식 위주로 검소하게 치러진다.

특히 올해 시민의날 행사에는 처음으로 동별 시민노래자랑이 펼쳐져 경축 분위기를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을 거친 23명이 참가해 갖고 닦은 노래 실력을 겨루게 된다.

이어 10월 1일에는 목포시립 6개 예술단이 합동으로 ‘항구, 희망, 풍요, 열정...그 곳 목포를 주제로 축하공연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개항 119주년 기념행사로 목포 유달산 마라톤대회, 목포시장배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목포진 수군 교대식, 목포시장기 종합 생활체육대전 등 다양한 행사가 10월 한 달 동안 펼쳐진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TAEYOUNG 21 HOSPITAL

태영21병원

인공신장센터 **오픈**

9월 1일

홈페이지 | www.ty21-endo.com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신장실 | 직통
070-4165-7573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유암동 1-1

유스퀘어 터미널, 신세계백화점, 태영21병원, 백운동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하는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전남지역 어디든 무료출장

"불만족 100% 환불"

"울리지 않고 잡음 없이 깨끗한 소리 착한 보청기"

출장문의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착한보청기협동조합
CHAHAN HEARING AID CO-OPERATIVE